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임형백* · 이성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A Study of the Epistemological Examination to Rural Society

Lim, Hyung-Baek* · Lee, Seong-Woo**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 epistemological recognition of rural society. This study suggests an epistemological reorientation for rural society circumscribing diverse theoretical thoughts as well as empirical evidences. Traditional theoretical perspectives in urban-rural dichotomy envisioned by modernistic idea have regarded rural society as a premodern and underdeveloped society. The perspectives also have regarded city as a symbol of civilization and development. These perspectives thought of the function of rural society as a periphery that can survive as a back-up for urban-oriented prosperity. This study shows that these idea have been concentrated on agricultural expansionism and productivism which do not function in the post-modern societies any longer.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these modernistic idea give little understanding of implicit value of rural society. Owing to the functional change of rural society which is quite omnipresent in the 21st centuries in the world,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the value of rural society should work even in the market society that has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an working-mechanism in urban society. The present study drives a new insight showing that rural renaissance is an explicit existence instead of a phenomenal one.

Key words : City, Recognition, Rural society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사회에 대하여 인식론적 고찰을 하는데 있다. 인류가 농경을 위하여 정착하면서 형성된 농촌사회는 시대에 따라 그 역할과 위상이 변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도시는 자연을 정복한 문명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반면, 농촌사회에 대하여는 이와는 대립되는 이미지가 존재하여 왔다. 특히 산업화 과정의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농업의 후진성과 농촌사회의 전근대적 성격이 강조되어 왔다. 이처럼 경제적 관점에서 농촌사회의 전근대적 성격과 농업의 후진성의 강조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경제학에서 농촌사회의 저발달을 농업경영형태의 봉건적 성격, 특히 토지에 대

한 인구압력에서 해석하려는 연구(이우재, 1977, 유병서, 1993, Nurkse, 1953, Lewis, 1954, Higgins, 1956, Fei와 Ranis, 1964, Meier, 1964)가 대표적인 예이다. 농촌사회는 농업을 통하여 유지되는 공간으로 농산물 생산을 통한 식량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 이러한 시각은 농촌사회를 전근대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농업의 생산주의¹⁾에 집착하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ECD(2001)에서도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Agricultural landscape and cultural heritage values), 환경보전(Environmental outputs), 농촌활력유지(Rural viability and employment), 식량안보(Food security), 야생동물서식지제공(Animal welfare)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의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m) 경향, 농촌사회를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수요

Corresponding author : Lim, Hyung-Baek
Tel : 02-880-4749
E-mail : emperor10131@hotmail.com

1) 이처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하여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농업확장주의(agricultural expansionism) 또는 농업에 있어서의 생산주의(productivism)라고 한다.

증가(박영환과 조영국, 2002, Giddens, 1998, OECD, 2000, 2001)로 농촌사회의 새로운 기능이 대두되고, 농촌사회의 가치에 새로운 인식이 나타난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농촌사회를 생산의 장이 아닌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보는 입장으로, 단순히 농업을 유지·보전하거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농촌사회가 가지는 새로운 가치를 보전·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농정의 이념과 방향이 생산주의적 농업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정책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박경, 2003). 이는 농촌사회의 가치와 기능이 변하고 있고 따라서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농촌사회에 대하여는 전근대적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생산주의에 입각한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양부(1985)는 한국인들의 국토인식은 전통적으로 '서울중심적 인식'과 서울과 지방의 분리, 도시와 농촌의 분리, 중심지와 배후지의 분리로 표현되는 '분리주의적 인식'이 있어왔고, 이것이 농촌 대 도시라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농촌사회에 대하여 인식론적 고찰을 한 연구도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사회에 대하여 인식론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고, III장에서는 연구의 결과와 함의 그리고 후속연구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II.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이 장에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을 농촌사회, 도시, 도시화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대, 중세, 근세, 현대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고, 현대는 마르크스주의(Marxism), 모더니즘(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으로 세분하여 고찰하였다.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할 적절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에 대한 인식에서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을 유추해석하였다.

1. 고대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가. 서로마 붕괴 이전의 농촌에 대한 인식

고대 그리스인들(Aristotle(B.C.384-322), Melissos²⁾(B.C.480?-400?))은 빈 공간³⁾에 대하여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Jammer, 1993: 26). 이러한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은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어졌다. 로마는 전기에는 영토확장에, 후기에는 자신들의 문명을 과시하고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대규모건축물의 건설에 치중했다. 로마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도시를 장엄하게 건설하고 이를 전파시켰다. 이 과정에서 로마는 이민족에 대한 정복을 영토확장과 문명화과정으로 생각하였다. 이후 라인강(the Rhine)과 다뉴브강(the Danube)이 로마와 게르만족의 경계선으로 고착되면서, 로마영토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로마를 게르만족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과 동시에 지리적 경계선의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로마는 문명화된 지역이고 다른 지역은 미개한 지역 또는 위험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고착되었고, 도시는 안락한 문명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도시는 거친 자연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던 유목민적 삶을 청산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능력을 활용해 인위적인 군집생활을 하게 된 것을 뜻하였다. 따라서 도시의 생성은 곧 문명화(civilization)를 의미했다(조명래, 2002: 32). 특히 동로마의 Constantinus 1세(280-337)가 313년 Milano 칙령(勅令)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의 보급은 도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Wertheim, 2002).

또 공간적으로 볼 때 도시의 귀족들이 거주하는 정치·문화의 중심지이며 농촌사회는 다수의 노예가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귀족이 노예를 지배하면서 주변과의 연계를 결여한 폐쇄적인 도시가 생산면에서는 농촌사회에 기생하였으므로, 농촌사회는 도시에 형식적·정치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공급지로 여겨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는 농촌사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도시라는 개념도 오늘날과 같은 지리적 개념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었고, 따라서 농촌사회도 추상적 개념으로서 도시 이외의 지역을 의미할 뿐이었다.

나. 서로마 붕괴⁴⁾ 이후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 2) 제논(Zenon)과 더불어 엘레아 학파(Eleatic school)의 대표자이다.
- 3) 공간의 개념은 각 학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철학적으로는 그 공간표상에서 출발한 경험적 공간을, 어떤 특별한 요소에 의하여 성격이 부여된 선험적 공간과 구별한다. 한편 심리학적으로는 시각이나 촉각 등의 작용에 의한 공간지각(知覺)에 입각하여 공간표상(表象)으로서 주어진다.
- 4) 395년 로마가 둘로 분열된 이후, 서로마는 476년에 게르만

476년 서로마 붕괴 이후 서유럽에는 게르만족이 세운 다수의 국가가 출현하였다. 도시에 정주하던 로마인들과 비교하여, 주로 산림지대에서 부족단위로 유목생활을 하던 게르만족은 농촌사회에 대하여 로마인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유목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조직단위는 씨족(Clan)이며, 이는 같은 조상의 자손들로 구성된 친족집단이다. 또 씨족집단은 고정된 순회장소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안태환, 2000: 66). 따라서 부족단위로 유목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농촌사회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유목민들은 농경민과는 달리 공통적으로 땅을 파헤치는⁵⁾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사회는 보호되어야 할 공간이기도 했다. 거기에다 유목민이었던 게르만족이 가지고 있는 전사(戰士) 우대와 남아선호 사상은 거친 자연과 농촌사회의 이미지와 유사한 것이어서, 이들은 농촌사회에 대하여 호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의 게르만족인 독일인과 네델란드인의 농촌에 대한 강한 애착(山崎光博, 1997: 135)도 이러한 인식이 계승된 것이다. 한편 기독교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도시의 위상을 강화한 반면(Wertheim, 2002), 서유럽에 성립된 게르만족의 국가와, 로마의 계승자로 부각된 동로마가 대립하면서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A.D.476년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 약 5백 년 동안 유럽도시는 쇠퇴했다.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도시는 축소되었다. 622년의 로마인구는 5만명으로 줄어들었다(안태환, 2000: 80)⁶⁾. 따라서 도시는 여전히 문명의 상징과 성스러운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장거리 교역의 단절로 농촌사회라는 배후지를 통한 도시의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존속이 위협받으면서 현실적 위상은 격감되었다. 반면 농촌사회는 도시에 대한 형식적·정치적 종속으로부터 탈피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지방화와 더불어 비로소 도시와 대비되는 구체적이고 지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서 농촌사회가 비로소 공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족에게 멸망하고, 동로마는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하였다.

5) 근세 청(淸)왕조가 중국을 정복한 이후에도 발원지인 만주 지역에 대하여 봉금(封禁)정책을 통하여 한족의 이주를 금지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6) 중세인 1377년에는 약 1.7만명으로 줄어들었다(안태환, 2000: 80).

2. 중세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고대 그리스와 유대-기독교 문화로부터 물려받은 이원론은 실재를 물질과 정신으로 엄격하게 분리하였고, 이후 이원론은 서양의 철학과 종교의 특징을 이루었다. 특히 중세에 들어 기독교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현세에서는 정신세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공간을 기독교적 교리와 결합시키면서, 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건축양식이 등장하였고, 도시는 끊임없이 성스러운 이상향을 모방하려고 하였다. 중세의 회화(picture)에서 특히 예루살렘이 구름 언덕 위에 떠 있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일종의 이상적인 도시국가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Wertheim, 2002). 켈트(Celt)족의 전설에 등장하는 Arthur와 그의 도시 Camelot 역시 이러한 문명과 도덕을 상징하는 이상향을 묘사한 것이며, 뒤이은 J. Andreae의 크리스찬폴리스, T. Campanella의 태양의 도시, F. Bacon의 뉴아틀란티스, T. More의 유토피아 등도 모두 이러한 기독교 이상향의 표현이다. 이는 성스러운 정신질서를 반영하고자 했던 서구적 열망이 도시라는 공간인식으로 표현된 것이며, 고대에서 이어져 온 성스러운 도시의 이미지가 한층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세에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공간은 '물질 공간'이라기 보다는 '영혼 공간'이었다. St. Augustinus의 말처럼 교회나 성당은 '신의 나라(Civitas dei)'로 여겨졌고, 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건축을 통하여 성스러운 도시를 현실세계에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4-5세기 이후부터 근대초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교회건축을 넘어 건축사 전반을 지배했다. 로마의 바실리카⁸⁾(Basilica)를 모델로 했던 초기의 교회건축에서, Byzantine 양식, Romanesque 양식, Gothic 양식, Renaissance 양식, Baroque 양식 등이 모두 이러한 인식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고딕 양식은 이러한 인식의 대표적 표현이었고, 고딕 공간에서 빛은 곧 신이었다. 그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초월적인 어떤 본질이란 점

7) 중세의 시기구분에 대하여 일부는 17세기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수설은 10세기경에 시작되어 16세기에 끝난 것으로 본다.

8) A.D.313년 Constantinus에 의해 Milano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예배장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공회당(公會堂)이 필요해지고 그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초기교회양식이다. 고대로마시대의 이 양식이 4세기에서 8세기에 이르는 중세초기에 다시 널리 유행했다. 이 양식의 특징은 평면도로 보면 긴 네모꼴이며, 기둥이 2줄 또는 4줄로 나란히 배치된다.

에서 ‘초본질적 빛’이었고, 그 빛을 방사하는 신은 자신의 빛으로 모든 것을 보이게 하지만, 스스로는 ‘보이지 않는 태양’이었다. 고딕적인 공간은 장축성과 수직성을 가지며, 이 양자의 긴장이 공간적 흐름 전체를 지배한다. 위압적인 장대한 규모, 장축적인 평면과 장축성을 강화하는 분절구조, 공간형태의 수직주의, 시선을 재영토화하는 고딕적인 가시성의 정점화된 배치가 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중세시대의 커다란 건축물들이 대부분 종교적 기획의 산물이었으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이어져 Aristotle의 공간인식론도 중세의 정황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창조주가 우주를 빈틈없이 충만하게 창조했다는 믿음의 전통, 즉 풍요로운 창조에 관한 신학적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Wertheim, 2002: 136-137). 따라서 공간은 아직도 실질적이고 물질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반면 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축성과 수직성은 농촌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인위적인 기하학적 구조이며, 대성당과 같은 건축물을 가진 도시와 대비된, 농촌사회는 충만하지 못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또 중세의 기독교에 있어서 지상의 삶과 현실은 큰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인간 내부에 자리한 정신이었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중요치 않았다. 중세의 종교회화에서 상징주의에 입각하여 사실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특히 배경의 묘사가 극히 미약한 것은 이러한 사상이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공간의 중심은 도시였고 농촌사회는 인식에서 소외되었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현세적 아름다움은 경시되었고, 충만되지 못한 미발전된 공간으로서 농촌사회라는 인식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전근대적인 농촌사회라는 인식으로 현대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로마가 정치적·경제적으로 통합된 것과는 달리, 대체로 중세에는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이 지방화되었고, 특히 1348년과 1350년 사이의 흑사병과 대륙간의 접촉으로 유럽에 전파된 전염병은 도시인구를 크게 감소시켰다(안태환, 2000: 80-84). 50년 사이에 유럽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었으며, 경제는 침체하였고, 폭동이 연이어 일어났다(한정선과 Heuer, 1991: 110-111).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혼잡’과 같은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반면 흑사병을 피해 외딴 산속 별장으로 휴가를 떠난 사람들을 다룬 G. Boccaccio(1313-1375)의 『Decameron』에서 나타나듯이, 농촌사회는 쾌적한(amenity)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또 중세는 기본적으로 봉건제가 지배하는 시대, 즉 농업적 생산관계가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농촌의 시대’였다(조명래, 2002: 55). 농업적 생산관계가 사회전반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도시와 대비되는 농촌사회의 정체성(identity)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장거리 교역의 분절로 인한 지방화는 농촌사회의 구체성과 지역성을 확립시켰다. 고대와 달리 중세도시에는 노예가 없었기 때문에 농촌사회와 도시의 형식적·정치적 종속관계도 파괴되었다.

3. 근세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15세기 Renaissance 이후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신 중심의 중세적 세계관에서 탈피했다. 사실적인 풍경을 무시하던 중세에 비하여 근세의 회화(picture)에서 인간과 자연의 현세적인 아름다움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인간 정신의 회복을 바탕으로 중세의 신 중심의 시대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오면서, 초자연적인 중세미술에 반대하여 인간 중심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현세적인 아름다움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Baroque 시대의 M. M. Caravaggio(1571-1610)가 자연주의적 추세를 부활시켜, 예술의 원천으로 관념보다 자연의 관찰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또 Renaissance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확립시켰다. 서양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자연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희생을 감수하여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 삶의 공간을 인간의 능동적 힘으로 바꾸고 개선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으며, 이의 실현방법이 수학과 이성을 기초로 한 서양의 과학문명이었다. 이를 통해 과학과 기술에 의해 자연을 연구하고 계산하며,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사고가 근세적 사유체계와 연결되고, 근세를 특징짓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변화를 정당화시켜 주었다. 농촌사회는 현실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반면, 성스러운 도시라는 인식은 소멸되었다. 그리고 인위적인 공간조성이 합리화되었다.

Renaissance 시대에 화약이 발명됨에 따라 도시의 방어물이었던 기존의 성벽은 부적당하게 되었고, 15-16세기에는 중세의 폐쇄형 도시계획이 방사형의 도시계획으로 변화되었다 또 이 시기에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났다. 고대도시의 기념비적 성격이 부활되어 통치자나 지배계급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도시의 형태에 강한 중심축을 가지고 좌우대칭으로 배치되는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래서 Baroque 시대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시미가 형성되었다(안태환, 2000: 97). 이 시기의 도시설계의 특징은 직선가로, 격자형 패턴 등이었다(Abercrombie, 1998). 한편 성은 도

시의 수평적 확대를 저해하였으므로 고층건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인위적인 공간조성과 도시계획이 발달하고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추구하게 되었다. 성(Bourg)으로 이루어진 도시 안으로 지식인과 관리계층이 모여들면서 부르주아(Bourgeois)란 계층이 생겨났다. 그러나 지식인 계층의 도시유입으로 농촌사회에는 주로 농민만 거주하게 되면서, 도시에 근대화란 인식이 투영되기 시작한 반면, 농촌은 전근대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또 중세의 신분사회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로 이행해 가면서 진보의 이념이 가장 중요한 철학적 주제 중 하나로 등장했다. 진보의 이념은 Descartes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Newton의 학문의 개념과 더불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한정선과 Heuer, 1991: 137-138).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술과 경제의 발전을 수반한 도시는 진보를 의미하게 되었다. 한편 이렇게 성장한 도시는 대부분 공업도시였고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세에서는 신의 미명하에 억압되어 오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재인식이 시작되면서,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위생상태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었고 농촌사회는 도시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대립되는 쾌적한 곳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았다. 15세기에 아메니티(amenity)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생활어로 자리잡은 것은 이를 나타낸다.

특히 19세기에 이르러 영국의 산업혁명하의 도시에 몰려든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사회적 문제였다. 도시 노동자의 거주공간은 과밀·빈곤·폭동·전염병 등의 도시문제가 집중되어 있었다(酒井憲一, 1998: 79-80). 영국에서 19세기에 아메니티 운동이 발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였다. 따라서 앵글로 색슨 국가에서는 도시와 농촌사회의 이미지 사이의 대립이 더 심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도시 노동자의 위생문제에서 출발한 아메니티가 교외(the suburbs)주택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농촌사회가 도시와 대비되는 쾌적한 곳이라는 인식이 사회전체에 확립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농촌사회와 도시의 격차와 도시의 무질서와 농촌사회에 대한 봉건계층의 착취로 인하여 차츰 도시에 대한 반감과 농촌사회와 도시의 대립구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7-18세기에 자본제의 등장으로 '농촌사회에 대한 도시의 지배'는 '농촌사회와 도시의 갈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Williams(1973: 11)와

Newby(1977: 12)는 이때 발생한 이러한 농촌사회와 도시의 인식론적 대립구도가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Gore(1997: 101)는 저개발국가에서 '농촌사회와 도시계급'간의 갈등을 노동과 자본간의 갈등, 외국과 국가이익간의 갈등 보다 중요한 계급갈등으로 보았다.

또 이때에 이르러 중세까지 이어져 오던 층만한 공간 개념이 명확히 텅 빈 공간개념으로 바뀌고, 서구의 관심이 '영혼 공간'의 영역에서 '물질 공간'의 영역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다(Wertheim, 2002). 특히 17세기 동안에 수학자들이 공간을 전유하게 되면서 지상의 공간과 천상의 공간에 대해 서구가 갖고 있던 생각이 혁명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결과 Newton의 우주론이 탄생하였다(Lefebvre, 1991: 2). 이러한 공간론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절정을 맞았으며(Burt, 1980: 104),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은 마음·정신·영혼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전적으로 물리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Wertheim, 2002: 203). 이후 공간은 성스러운 정신질서 대신에 세속적인 물질의 힘과 수학법칙에 의거하여 설명되었고, 연속적인 3차원의 텅 빈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도시(특히 공업도시)의 해악을 바로 잡으려는 최초의 두 가지 양 극단적 시도가 나타났다. 하나는 R. Owen., C. Saint-Simon., F. Fourier., E. Cabet., 그리고 J. Godin 등 유토피아사상가들로 당초의 출발점부터 새롭게 출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순수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도출된 커뮤니티(communitiy)의 형태로 기존의 도시형태를 대체하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도시에 새로운 위생법규와 새로운 설비를 끌어들이는 전문가들과 관리들로 각각의 문제를 제각기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다(Benevolo, 1996: 12-13). 이들은 중세의 유토피아사상가들(J. Andreae., T. Campanella., F. Bacon., T. Moore)과 달리 이상도시의 서술에만 머물지 않고 이상도시의 실천에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보다 완벽하고 계획된 도시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간에 대하여 19세기까지는 후기 Bergson주의적 인식이 받아들여졌다(Foucault, 1980: 70). 따라서 아직도 공간은 죽은 것, 고정된 것, 비변증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¹⁰⁾, 농촌사회 역시 이러한 공간인식에서

9) 이것은 현대의 모더니즘 건축에까지 이어져, 현대주의적 공간은 기하학적 형식성과 격자화된 도시 이미지에 기초하고 있다.

10) H.L. Bergson(1859-1941)은 공간을 상호병치적이고 동질적 이어서 무한히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공간을 죽은 것, 고정된 것, 비변증법적인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반면 시간은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풍요로움, 비유함, 변증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벗어나지 못하였다. 여기에다 근세초기 지식인 계층의 도시집중은 도시의 근대성을 부각시키고 상대적으로 농촌의 전근대성을 부각시켰고, 근세후기에 와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는 필연적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포피아 사상가들의 등장은 이성을 통한 계획된 도시를 긍정함으로써 도시화를 합리화시키면서 도시화와 근대화를 등치시켜 나갔다.

4. 현대¹¹⁾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중세 이후 지속되어온 농촌사회와 도시의 인식론적 대립(Williams, 1973: 11, Newby, 1977: 12)에서, 농촌사회는 가족, 전통적인 도덕, 공동체와 같은 긍정적인 면을, 도시는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익명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상징하여 왔으며, 이러한 대립적 인식은 문화적 형태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이론이나 사회철학적인 표현에서도 나타난다(Saunders, 1988: 88-89). 이러한 '도시-농촌사회의 사회문화적 이분화론'은 19세기 중엽 사회지배층에 의하여 도시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제기된 이후 기본구도로 자리잡아왔다(조명래, 2002: 89).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dualism)은 농촌사회와 도시에 대한 공간적인 해석 보다는 인간관계의 형태에 치중한 것이며, Wirth(1964: 224)도 도시와 농촌사회의 이분법을 현대를 특징짓는 인간공동체의 두 가지 이념형, 즉 기본적인 두 개의 인간군집 형태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농촌사회와 도시의 대비는 농촌사회와 도시 사이에 현존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무질서한 도시의 팽창과 그 속에 숨어있는 자본주의의 논리속에서 문명의 상징이었던 도시속에 가려진 소외와 약탈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는 현대사회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인본주의에서 물질주의를 분리시키면서 나타난 반발이 농촌사회와 도시의 분리로 형상화 된 것이다. 결국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설명하는 이데올로기적 표현이며, 이 모순이 도시문제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촌사회와 도시라는 물리적 형태를 통하여 인식론적 대립구도가 구체화되고 확산되었다. 이제 도시는 발전의 상징으로는 인식되지만 문명의 상징으로서의 인식은 쇠퇴하였고 성스러운 인식은 완전히 사라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속에

공동체와 자연의 요소가 부각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작용이며,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아직까지는 도시내부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농촌사회에 대하여 이상향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노동과 여가의 분리, 평일과 주말의 분리, 남성성과 여성성의 분리, 개인과 사회의 분리 등도 이러한 형상화의 한 부분이다. Saunders(1998: 171)는 노동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비노동활동을 상업화하기 때문에 레저공간도 자본주의적 관계를 반영하며, 중심지역이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주거용도의 공간은 주변으로 추방되기 때문에 교외로의 주거지 분산도 자본주의 관계의 산물로 보았다. 현대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을 마르크스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세분하여 각 사조별로 고찰하여 보자.

가. 마르크스주의(Marxism)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1) 초기마르크스주의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1760년대부터 1850년대에 걸쳐 일어난 제2차 엔클로저(enclosure) 운동은 인구의 증가, 산업혁명에 의한 도시의 팽창, 농업노동자의 상대적 감소, 식량공급의 부족,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의 폭등이라는 정세하에서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일어났다. 영주들과 국가는 농지에 대한 농민의 공동이용권을 배제하고, 농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강화하였다. 또 전업적 수공업자는 공업제품에 대한 국내수요의 증대와 해외시장의 확대에 자극받아 상인자본에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산업자본을 축적하였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시켰다. 마르크스주의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은 출발배경부터 이러한 농촌사회와 도시의 대립구도에서 출발하였다.

20세기 초의 마르크스주의자 V. I. Lenin(1870-1924), R. Luxemburg(1871-1919), N. I. Bukharin(1888-1938), L. Trotsky(1879-1940), B. Bauer(1809-1882) 등도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의 시각에서, 농촌사회와 도시, 집적되는 중심부와 분산되는 주변부 간의 통합적이고 공시적인 적대관계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Soja, 1997: 46-47).

Marx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출현을 농촌사회와 도시가 분리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았고(Marx, 1981: 43), 공장제 수공업에서 기계제 공업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자본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Marx, 1983: 442-451). 결국 Marx는 도시를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의 터전으로 인식한 반면, 농촌사회는 산업화의 배후기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보다 근대화가 뒤진 것도 농민층의 근대적 분화와 생산분화

11) 한국사에서는 조선의 고종(재위 1863-1907)·순종(재위 1907-1910) 때부터, 중국사에서는 신해혁명(1911) 이후, 서양사에서는 제1차세계대전(1914-1918) 종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의미한다.

의 발달이 늦은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관심은 출발부터 도시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나아가 19세기 중·후반 이후의 농촌사회에 대하여 Marx(1973: 479)는 '농촌사회의 도시화(the urbanization of countries)'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세 중·후반 이후 자본주의가 전면화되면서 도시와 농촌사회의 구분은 없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의미도 농촌사회와 도시의 개념적·지리적 구분이 없어졌다고 보다는, 자본주의가 전면화되면서 Marx와 Engels가 사회의 기본모순으로 주장한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농촌사회와 도시를 넘어 사회전면에 부각된 것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마르크스주의에 있어 농촌사회와 도시의 구분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사회전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농촌사회와 도시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성장은 동시에 사회적으로 농촌사회와 도시의 대립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Marx와 그의 계승자들은 한결같이 농촌사회를 도시와 대립되는 지역이면서 도시에 의하여 수탈되는 지역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렇다할 연구성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Marx도 농촌사회와 도시의 대립구도를 견지하면서도, 자본주의내의 계급적 분화에서 농민의 계급상의 위치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2) 현대 마르크스주의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Marx의 계승자들도 농촌사회보다는 도시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농촌사회에 대한 이들의 인식 역시 도시에 대한 인식에서 유추해석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서양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농촌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거대도시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도시화의 진척 및 거대 도시의 출현과 함께 빈부 격차로 인한 계급갈등, 인종간 갈등, 일탈과 범죄의 증가, 주택문제, 도시 재정 위기 등과 같은 심각한 도시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기존의 도시이론(주로 시카고 학파의 생태학적 접근)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몇몇 도시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이론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도시 연구 흐름을 총칭하여 신도시사회학¹²⁾

(new urban sociology)이라고 한다. 신도시사회학의 주된 입장은 도시를 고립된 실체로 인식하지 않고, 광범위한 사회적 과정과 연결하여 인식하였다.

Lefebvre는 도시적(urban)이라는 개념과 도시(city)라는 물리적 대상을 동일시하지 않았고, 도시(the urban)는 공간, 일상생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재생산이라는 세 가지의 상호 관련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Saunders, 1998: 171). 따라서 Lefebvre에게도 농촌사회 자체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농촌사회의 사회적 공간형태와 표상방식의 역사적인 양상과 변화가 연구의 중심이다. 또 공간이 자본주의적 생산을 새로운 지역들로 확대시키는 하나의(또는 가장) 주요한 상품으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공간의 생산은 잉여가치 창출과정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모든 공간은 이데올로기로 가득찬 산물이며, 집중이 도시생활의 요소이고 집중이 없으면 더 이상 도시생활이 아니고 도시중심지들의 붕괴는 도시적 삶의 본질을 위협한다고 보았다(Lefebvre, 1970).

Lefebvre는 자본주의체계가 자신의 존재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간을 점유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즉 농촌사회는 자본의 논리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공간이며, 자본의 이러한 공간 확장을 도시화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Lefebvre(1991: 4)에게 있어서 농촌사회와 도시(city)의 물리적 구분의 중요성은 점점 감소하며, 농촌사회는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특정한 사회·역사적 조건의 산물로서의 '사회적 공간'이다. 따라서 도시화와 같은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생존하며, 도시화가 더 이상 불가능해질 때 자본주의의 최종적인 위기가 온다. 이것이 그가 말한 도시집중의 포화상태와 자기파괴적인 면이다. 이 점에서 농촌사회를

이를 새로운 이론적 시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J. Rex와 R. Moore의 도시관리주의(urban managerialism)가 대표적인 이론이며, 1980년대 P. Saunders에 의하여 이론이 정교화되었다. 반면 신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은 도시사회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계급구조적·자본축적적 기능에 주목하여 도시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H. Lefebvre의 공간생산론, M. Castells의 집합적 소비론, D. Harvey의 건조환경론이 대표적 이론이다. 두 접근은 도시를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탐구 단위로 설정하던 종래의 접근과 달리, 사회의 전체수준에서 도시사회문제를 인식하는 구도를 설정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갈등 및 변동의 원인율, 신베버주의적 접근은 도시 주체들의 소비과정이나 이를 둘러싼 판로제도, 정책의 문제로부터 찾고 있는 반면, 신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은 자본주의적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더 우선시하면서 생산 및 계급적 역학관계로부터 찾고 있다.

12) 신도시사회학은 신베버주의적(neo-Weberian) 접근과 신마르크스주의적(neo-Marxism)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신베버주의적 접근은 도시를 하나의 '국지적 사회체제'로 간주하면서 체제 관리자의 역할과 갈등을 중심으로 도시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도시생태학적 연구가 주목했던 도시공간구조의 경험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재생산되어야 할 공간으로 보고, 그러한 재생산 과정이 바로 갈등과 위기가 지속되는 원천이라고 보는 Poulantzas(1978: 105)와도 일치한다.

Harvey¹³⁾의 이론도 공간생산의 이론이라는 점에서는 Lefebvre와 유사하다. 그 역시 농촌사회라는 공간보다는 그 속에서의 자본주의의 축적양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사회는 인간의 실천을 통해 생산되고 재현되며, 인간과 분리된 농촌사회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인간생활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가치화되고 재생산된다(최병두, 2001: 488-489). 그러나 농촌사회를 자연적인 실체로서의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을 자본주의의 소외현상의 해석에 이용한 Lefebvre와 달리, Harvey(1985)는 농촌사회와 도시의 차이와 정체성은 인정하면서도, 농촌사회를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Castells은 1970년대 Althusser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Poulantzas의 국가론을 원용하여 서구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되는 도시 공간을 규명하였다. 특히 미국중심의 생태주의적 도시이론 뿐만 아니라 Hegel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도시의 일상생활 공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Lefebvre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또 Castells(1977)은 Althusser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을 문화와 자연의 상호작용에서 변증법적으로 출현하는 물질산물로 보면서, 도시 내의 계급갈등이나 사회적 불평등이 가져오는 도시 공간의 배치를 고찰하였다. 이는 '공간지리학적 관심'에서 '사회학적 관심'으로 이동한 것이며, 도시가 국가, 지역, 농촌사회 등의 유사개념들과 구분되는 속성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Castells은 신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농촌사회와 도시의 명확한 구분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980년대 초반에는 마르크스주의도 포기하였다¹⁴⁾.

Lefebvre의 공간생산론, Castells의 집합적 소비론, Harvey의 건조환경론도 모두 농촌사회 보다는 도시에 내재된 자본주의의 구조적 본질과 특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농촌사회를 아직 자본주의의 구조적 본질과 특성이 덜 반영된 미래의 자본축적의 기능공간으로, 따라서 자본주의의 진행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될 공간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이들에게 농촌사회와 도시의 구분보다는 이들 공간에 표현된 자본주의의 구조적 본질과 특성이 연구대상이며, 공간으로서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이론과 사회이론이 자유주의적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진보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한정선과 Heuer, 1991). 또 마르크스주의가 농촌사회보다 도시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하였지만, 현대 마르크스주의 도시이론도 Marx의 유물변증법, 계급투쟁 이론, 자본주의 국가론 등에서는 많은 분석을 내놓은 반면, 농촌사회와 도시의 분화, 자본주의 이행 과정에서 도시의 역할에 관한 분석에는 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 모더니즘¹⁵⁾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1) 근대화론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모더니즘(modernism)은 오늘날 서양 물질문명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사상 중 하나이다. 서양에서는 신 중심의 중세에서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성과 과학을 통한 삶의 환경 개선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고, 자연은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특히 18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진보의 이념이 자리잡았고(Bock, 1979: 70, Harrison, 1994: 21), 20세기에 들어와 진보의 이념은 근대화론¹⁶⁾(modernization theory)과 더불어 강화되었다(Wehler, 1975). 이후 발전은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논지로 자리잡았다(임형백과 이성우, 2003, Berman, 1995: 433). 특히 산업화 이후 서양의 경제성장과 물질문명의 발전은 서양식의 산업화를 근대화와 동일시하도록 만들었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서양식의 경제성장을 모방하였다.

고전적 진화론, 진화론, 신진화론, 확산론, 구조기능주의, 사회학 체계론 등에 이러한 인식이 잠재되어 있다.

15) 모더니즘은 사회과학적 관점, 문예사적 관점, 철학적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상환, 1996: 357-360). 본 논문에서는 '서구적 합리주의'를 의미하는 사회과학적 관점의 모더니즘과 수학이 자연과학의 언어로 확립된 결과 발생한 사물에 대한 인식변화에서 출발한 철학적 관점의 모더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종교와 형이상학의 중세적인 획일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류사회가 끊임없이 진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합리적 실증주의, 도구적 이성, 지나친 객관성의 주장으로 F. Nietzsche와 M. Heidegger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16) 근대화론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은 임형백, 이성우, 2003, 농촌과 도시의 공존을 위한 인식론적 전환: 근대화론 비판, 농촌사회 13(2) : 41-73을 참고 바랍니다.

13) Harvey는 공간이론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모더니스트이다.

14)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도시공간에서 첨단기술과 정보기술에 관한 연구로 선회하였으며, 정보도시(Castells, 2002)에서 마르크스주의 포기는 명확히 드러난다.

여기에서 발전한 근대화 이론은 공통적으로 근대성을 전통의 정반대의 것으로 생각하였고, 저발전 사회들의 진화의 종결점을 현재 서구의 모습, 또는 서구의 어떤 측면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Harrison, 1994). 농업에 주로 의존하던 대부분의 국가가 이 과정에서 전근대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중요한 국가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의 후진성이 강조되었고, 특히 경제학에서는 농촌사회의 저 발달을 농업경영형태의 봉건적 성격, 특히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에서 해석하려는 연구(이우재, 1977, 유병서, 1993, Nurkse, 1953, Lewis, 1954, Fei와 Ranis, 1964)가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농촌과잉인구의 유출이 농촌에서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오고 도시에서는 노동력을 공급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도시화를 근대화의 과정으로 인식하거나 도시화와 근대화를 동일시하였다. 이들의 나타내면 표 1, 2와 같다.

표 1. 도시화를 근대화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주장들

학자	인식
Bendix, R(1967)	경제발전이 도시화의 증대를 가져온다.
Smelser, N.J(1969)	도시화는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중요한 과정이다.
Berman, M(1995)	생산의 산업화, 대규모 인구이동, 도시화, 대중매체의 발전, 민족국가의 성립, 대중적 민족적 사회운동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확대 등이 자본주의적 근대화이다.
Tucker, K.H(1999)	자본주의가 독특한 도시적 경험과 의식을 창출하고 공간의 고정성을 파괴한다.

표 2. 도시화와 근대화를 동일시하는 주장들

학자	인식
Weber, M(1958)	근대 (산업)사회의 출현과 성장은 전통적인 공동체적 사회관계로부터 근대 합리적인 결사적 사회관계로의 변화 그 자체이다.
Durkheim, E(1964)	도시는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가 구현되는 장이다.
Lash, S(1992)	“근대성은 도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대성은 도시를 통해 왔고, 도시에서 구체화되었으며, 도시를 통하여 변해왔다.
Friedland, R. and Borden, D(1994)	근대성은 시간을 통해 등장하였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공간을 통해 형성되고 완성되었다. 그 공간은 다름아닌 도시를 지칭한다.
Simmel, G(1994)	대도시 특유의 정신적 삶이 ‘근대성’(modernity)이다. 메트로폴리스가 근대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

*자료 : 임형백, 이성우, 2003 : 50

특히 Simmel(1994)은 역사적으로 상이한 발달단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분법으로 도시와 농촌사회를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대도시 특유의 정신적 삶을 ‘근대성(modernity)’으로 보고 있어, 역시 도시화와 근대화를 등치시키고 있다.

Smith(1986)는 공간을 사회의 물질관계들이 총체적으로 형성해 놓은 조영물(造營物)로서 살아있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공간은 내재적·존재론적 속성때문 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과정의 산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공간을 죽은 것으로 인식하고 시간만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19세기 후기까지 지속된 후기 Bergson주의적 견해가 20세기에 와서는 소멸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공간은 더 이상 고정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시간과 마찬가지로 변증법적으로 생성가능한 대상이 된 것이다.

2) 비판이론¹⁷⁾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Habermas는 모더니즘을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도구적

17) 오늘날 「비판이론(critical theory)」 또는 「비판사회이론」 또는 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독일 Frankfurt 대학 부설기관으로 1924년 개설된 「사회조사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Frankfurt」에 참가한 학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T.W. Adorno(1903-1969), Erich Fromm(1900-1980), Herbert Marcuse(1892-1979), Walter Benjamin(1892-1940), L. Löwenthal., F. Pollock., F. Neumann 등이 이에 속하며, 창립 이후 지금까지 제4세대의 학자群으로 발전하였는데, 현재 이 학파의 인물로는 Jürgen Habermas(1929-), Claus Offe(1940-), Alfred Schmidt(1931-), Albrecht Wellmer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유럽의 대학이 신학을 위주로 하여 신학의 하위학문으로서 신학을 뒷받침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타학파가 설립되었던 것과는 달리 Frankfurt 대학은 사회학과 철학이 중심이 되어 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이들의 전통이 학파에 계승되어 이들은 현대 사회를 철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이 취급하는 갖가지 문화 영역의 상호 관련 속에서 총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의 교조주의에는 반대하면서, Marx를 계승하여 Freud의 정신분석학과 사회학의 방법을 결합시켜 현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전개한 네오마르크스주의로서 현대 모더니즘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Adorno와 Horkheimer 등의 1세대는 철저한 비판작업을 전개하며 근대의 논리를 추적하였으나, Habermas는 철저한 비판작업보다는 현대사회의 운영원리를 점검하고 현대적 합리성의 재건을 위한 철학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Adorno와 Horkheimer는 그들의 초기이론을 포기하였으므로, 1960년대 말의 비판이론은 Habermas와 미국으로 귀화한 Marcuse에 의해 주도되었다.

합리성, 과학기술의 산물로 인식하고 자본주의와 계몽적 이성의 관점에서 개념화하였다. 현대사회의 성립을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서, 자본주의를 현대의 사회구조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의 생산양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 Habermas (1981)는 사회의 합리화는 체계와 생활 세계의 두 영역¹⁸⁾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한다. 전자에서는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고 후자에서는 소통적 합리성이 특징인데, 도구적 합리성이 생활 세계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할 때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국가나 경제와 같은 제도들은 현대사회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세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동들을 취하게 되어 그 안에서 병리적 현상과 위기를 낳게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Habermas가 주장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근대화의 실패와 위기이며 이는 곧 근대화의 상징인 도시의 위기를 의미한다. 즉 Habermas에게 모더니즘은 아직 미완성된 프로젝트이며, 과잉도시화와 도시문제는 이러한 모더니즘의 위기를 반영하는 하나의 현상이고, 농촌사회는 아직 이러한 위기가 다다르지 않은 공간이다. 따라서 Habermas(1981: 577)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운동을 '생활세계의 식민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며, 이는 결국 부분적으로는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노동사회에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과 인간본성에 대한 억압이 나타나며, 도시화의 폐해와 농촌사회의 파괴도 역시 생활세계의 고유한 영역이 파괴되는 현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생활세계의 정당한 평가와 의사소통행위를 통하여 과잉도시화와 농촌사회의 파괴를 막는 것이 필요하며, 농촌사회는 경제와 행정 영역의 우세에 따라 일방적으로 도시화에 편입되어서는 안되는 도시와 동등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지역인 것이다. 즉 Habermas에게 농촌사회는 도시와 동등한 맥락과 규칙을 제공받아야 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Habermas가 산업자본주의와 근대화의 폐해를 비판하고 합리화된 체계와 생활세계의 차원 높은 통합을 미래의 모더니즘에서 찾고는 있지만, 농촌사회에 대한 그의 인식은 농촌사회를 전근대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전임자들의 인식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그의 분석은 정치적 실천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그의 주장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완성의 기획'으로

18) Habermas는 사회가 언어를 매개로 행위가 연결되는 생활세계의 영역(의사소통적 합리성)과, 화폐와 권력 같은 비언어적 매체를 통해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 체계(system)의 영역(목적합리성)으로 분리된 것으로 인식한다.

서의 모더니즘을 주장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합리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비판하지만, 정작 현대성을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농촌에 대한 인식

포스트모더니즘¹⁹⁾(postmodernism)은 자본이 사회의 구성과 역사의 진전에서 단 하나의 결정적 요소로 간주되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환원주의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진보와 근대화론에서 탈피하였음을 의미한다.

Liotard는 '합리성'을 자본주의 특유의 것으로 간주하며, 자기 자신의 이익 이외의 모든 것을 망각하는 자기충족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단자'(monad)로 이해한다(Sim, 2003: 17). Lyotard는 모더니즘의 역동성을 마치 유일하게 가능한 행동방식인 것처럼 내면화시키고(Liotard, 1991: 67), 모던적 과학은 효율성과 가능성을 중시하는 '실증주의'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하였다(Liotard, 1992).

19) 원래는 1960-19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문학 및 예술전반에 걸쳐 일어난 문화운동으로, 모더니즘과 상반되는 특징을 갖는 작품이나 작가, 혹은 취향이나 태도 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한편 1960년대 프랑스에서는 C. Lévi-Strauss에 의하여 구조주의(structuralism)가 등장하였고, 뒤이어 1968년 이후 구조주의의 몰역사성과 결정론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포스트구조주의(post-structuralism)가 등장하였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사회적 실천의 요소를 이론내에 도입하려고 하였고, 구조주의와는 달리 인간주체나 개별적인 자아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합리적이성을 소유한 인간의 주체성이 후기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거의 다 소멸되었다는 회의주의를 바탕으로, Descartes 이래 근대철학의 토대였던 '주체', '진리' 등을 비판 또는 해체(deconstruction)하면서, 거대서사(grand narrative)를 부정했다. 이들은 J. Derrida나 J. F. Lyotard처럼 구조주의 자체를 극복하고 탈피하려는 입장과, M. Foucault나 G. Deleuze처럼 구조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입장 등 차이가 있다. 이후 Lyotard가 더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화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장된 일련의 흐름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통칭하며, 이들 철학이 기초하고 있는 F. Nietzsche., M. Heidegger., L. Wittgenstein 등도 포스트모더니스트로 분류되기도 하며, Lyotard와 J. Baudrillard가 포스트구조주의의 내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명시적으로 이동한 철학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흔히 포스트구조주의는 철학적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출발한 포스트구조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엄밀하게 말하면 동일한 것은 아니며, 프랑스의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포스트모더니스트로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

결국 Lyotard에게는 마르크스주의와 기타 계몽주의의 주장도 역사적 근거나 진리가 될 수 없고, 포스트모던적 과학에서의 담론의 목표가 Habermas가 주장하는 것 같은 보편적 합의가 될 수도 없다. Lyotard는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이론과 방법들을 공격하고, 포스트모던적 사회를 이질적 담론이 무한히 번창하는 사회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심에 의해 억압된 타자('laure = the other)와 지방을 주목할 수 있는 지적 조건을 주장한 것이며, 정합성과 일관성에 대한 다양성과 분열성의 우위, 동질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질성과 불가공약성의 우위를 주장한 것이다. 이는 Derrida의 중심테제 '중심화된 것의 해체(deconstruction)'와도 상통하며, 결국 포스트모던 사회를 주변화되고 배척된 집단에 의해 중앙집권화된 권위에 대한 일반화된 반란들을 밝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적 권위에 대한 해체주의적 공격이며, 도시에 대한 농촌사회의 해체주의적 공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Lyotard에게 농촌사회는 지방 즉 억압된 타자이며, 다양성과 분열성을 보유한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모더니즘의 상징으로서의 도시와 일방적인 도시화에 저항하고 농촌사회의 존재와 담론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다. 결국 그에게 농촌사회 역시 거대서사(grand récit)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성을 지닌 자체의 존재의의를 지닌 공간이며, 도시화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어서는 안될 공간이다.

Foucault(1986)는 이성주의 자체의 보편성·합리성과 근대성의 연관문제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을 부정하고, 결국에는 진보의 관념 자체를 상대화 해버린다. Foucault에게 진보는 19세기에 나타난 특이한 인식들에 불과하며, 19세기의 진보 개념은 이전과는 달리 명확하게 누적적인 시간²⁰⁾ 개념에 기초해 있다. Foucault의 경우 공간과 시간의 상대적 의미에 대한 출판물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사망 직전 가진 인터뷰(Rabinow, 1984)에서 공간을 모든 형태의 공동체적 삶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또 모든 권력의 행사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공간은 모든 형태의 사회생활에서 궁극적이며, 포스트모던 사회의 구성요소는 모두 공간을 통해서 구성되고 작동한다. 따라서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 나아가 작은 주거지까지도 사회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 Foucault가 말하는 불연속성은 어떤 역사 시기에서 다른 역사시기로 이행하

는 과정에서 사물들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인식되거나 묘사되지도 특징지워지거나 분류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Foucault에게 있어서 농촌사회는 도시와는 다른 '지역적인' 방식으로 지역마다 다른 특유의 방법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결국 Foucault는 공간이란 권력에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들이 부각된 표출로서 지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농촌사회나 도시 모두 어떤 형태의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계속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견해는 Marx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Foucault의 권력론의 핵심은 미시권력의 모순에 대한 저항이다. 따라서 Foucault는 Marx와 동일한 관점을 취하면서도 도시보다는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농촌사회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편 Foucault는 도시를 통제의 중심지로 본다. 도시는 폐쇄, 구금, 감시, 분할, 사회적 훈육과 공간적 차별화를 통해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요새(citadels)와 같다(Soja, 1997: 197). Foucault에게 도시는 지식과 권력이 결합하는 대표적인 훈육(discipline)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화는 공동체적 사회에서 훈육의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Foucault의 권력이론은 반정초주의(antifoundationalism)의 한계로 인하여 수평적 연계와 상향식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혹은 국부적인 권력장에서의 저항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결국 진보적 발전을 믿는 역사관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이론으로서의 비판적 계기를 상실하는 것이며, 농촌사회에 인식론적으로는 주목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이래 농촌인구는 산업노동에 적응되도록 훈련되어 왔으며(Baudrillard, 1991: 106), 현대의 모사(simulation)는 다른 스펙타클로부터 복제하는 복제를 통해, 원본보다 더 생생하고 실제적인 스펙타클 즉 과잉실재(hyper-reality)를 만들어낸다(Baudrillard, 1992b). Baudrillard는 모사와 그에 따라 만들어진 과잉실재를 포스트모던한 사회의 특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나아가 Foucault가 불연속성이라는 담론을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반하여, Baudrillard는 산업적 현대성, 정치경제학, 그리고 준거가 되는 이성에 대한 완전한 단절로서의 주관성의 철학과 근대형이상학의 종말을 주장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의 승리를 주장한다(Baudrillard, 1983, Best와 Kellner, 1995: 64). 이것이 Baudrillard의 기호의 정치경제학이며, 1920년대 T. Veblen의 '과시적 소비'의 개념을 계승한 것이다. 결국 현대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20)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이스인들은 시간이 순환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B. Michelangelo(1475-1564)의 회화 '천지창조'에서 보면 이때에 이르러 시간의 순환의 포기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신이 '천지창조'를 바보처럼 되풀이하리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진경, 1997: 44).

농촌사회는 초라하고 낮은 지위의 과잉실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전근대적 농촌사회라는 이미지에 대한 거부이다. 또 Baudrillard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내파(implosion)의 과정으로 특징짓는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반발과 적어도 이의 현실적 표현으로서의 과잉도시화에 대한 반발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Baudrillard(1992a)는 상품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의미를 낳는 기호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결국 내파의 과정은 경계는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농촌사회와 도시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공간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국지성을 포스트모던 사회의 한 부분이며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Warf, 1993). 이들은 모더니즘의 총체적 담론이나 거대서사가 지방마다 고유한 사회구성체를 설명하는데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장소들 사이의 통일성과 확실성 보다는, 오히려 장소들간의 다양성과 모호성 그리고 비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재론적 공간인식 방법을 비판하고, 공간이 지나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속성의 이해를 보다 중요시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공간적, 시간적 차원은 고정된 의미와 결부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차원들은 개별적인 행동에서 주체에 의해 늘 새롭게 결합되며, 주관적으로 특정한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결국 공간은 인간활동의 내용을 규정하는 측면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일 뿐이다(Werlen, 2003: 36). 따라서 도시가 현대사회의 중심이고 농촌사회는 도시와 구분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지리적 구분보다는 개인의 삶의 공간으로 의미를 가진다.

또 포스트모더니즘은 특정지역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농촌사회에 대하여 과편화, 미학화, 주체화, 은유화 등의 현상을 전략적으로 주목한다. 이들에게 농촌사회는 거대한 통일된 이론으로 인식할 수도 일반화할 수도 없는 공간이다. 또 이들은 서양의 이분법적 형이상학과 총체성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농촌사회와 도시의 이원적 구분에도 반대한다. 전체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성을 거부하고 상대주의적 시각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 포스트모더니즘의 공간해체론은 탈중심화와 해체에 주목하고 타자를 강조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도시를 문화의 상징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도시의 시각에서 농촌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거부한다. 농촌사회는 도시와는 다른 논리로서 인식되고 설명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도시

에 대한 중속을 거부하고, 도시화(통합)보다는 농촌사회를 도시와 차별된 감수성과 다양성을 지닌 지역으로 존속시키려 한다. 타자를 강조하는 입장도 도시(중심)로부터 이탈된 지방적이고 주변적인 농촌사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며, 이는 차별, 분산, 지방, 개체의 공간미학을 의미한다. 또 문화와 미학을 주목하는 입장은 농촌사회의 문화와 자연경관의 존재가치에 대한 지지이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은 농촌사회를 탈중심화된 '지방공간(locality)'으로서 전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타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농촌사회의 입장을 대변하고는 있으나, 진보자체를 부정함으로서 대안을 제시 못하는 내적모순을 가지고 있다. Best와 Kellner(1995: 216)는 특히 Lyotard를 사회경제학적인 현상으로서의 모더니즘(modernity)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한 이론가로 인식한다. 사실 Lyotard도 근대적 지식에 대한 비

표 3. 시기별 농촌사회·도시·도시화에 대한 인식

시기	농촌사회	도시	도시화	
고대	서로마 붕괴 이전	· 도시에 종속된 생산 공간 · 비문명화된 지역 · 추상적 개념 (도시 이외의 지역)	· 문명의 상징 · 정치·문화적 중심지 · 추상적 개념	· 문명화
	서로마 붕괴 이후	· 공동체 · 보호되어야 할 공간 · 구체적 개념	· 문명의 상징	· 공동체의 파괴
중세	· 충만하지 못한 공간 · 미발전된 공간 · 쾌적한 공간	· 영혼공간(성스러운 도시의 추구) · 혼합한 공간	· 신의 권위의 현세적 표현	
근세	· 쾌적한 공간 · 아름다운 공간 · 전근대적 공간	· 혼합한 공간 · 현세적 권위의 상징 · 근대적 공간 · 물질공간	· 근대화 · 산업화	
현대	마르크스주의	· 산업화의 배후기지 · 자본축적의 기능 공간	·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의 터전 · 자본의 축적 양식	· 자본의 공간 확장
	모더니즘	· 전근대적 공간	· 근대적/합리적 공간 · 근대화의 상징	· 근대화 · 합리화
	포스트모더니즘	· 공동체(Foucault) · 억압된 타자(Lyotard) · 과잉실재(Baudrillard) · 차별과 감수성의 공간	· 감시와 억압의 공간(Foucault)	· 자본의 공간 확장 · 후기 자본주의의 의논리

표 4. 시기별 농촌과 도시의 관계 및 공간인식 변화

시기	원인	결과
고대	서로마 붕괴 이전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론 ·기독교의 보급 ·충만한 공간 ·'성스러운 도시'의 추구 ·농촌사회의 도시와의 정치적·형식적 종속 ·도시의 농촌사회에 대한 우월적 지위 확립
	서로마 붕괴 이후	·도시의 위상 격감 ·농촌사회의 도시로부터 정치적·형식적 종속 탈피 시작 ·농촌사회의 도시로부터의 독립과 지방화 ·농촌사회를 공동체로 인식 ·농촌사회에 대한 구체적·지리적 인식
중세	·기독교의 이원론	·유토피아 사상 ·영혼 공간 ·농촌사회를 충만하지 못한 공간으로 인식
	·도시의 쇠퇴 ·노예의 부재	·농촌사회의 구체성, 지역성 강화 ·농촌사회를 쾌적한 공간으로 인식 ·농촌사회의 도시와의 정치적·형식적 종속 탈피
근세	·르네상스 ·인간중심의 세계관	·농촌사회를 현세적 미를 가진 물질 공간으로 인식 ·'성스러운 도시'의 포기 ·인간복지증진을 위한 인위적 공간 조성(도시계획 발달)
	·과학문명 ·화약발명 ·통치계급의 권력 강화	·기하학적 공간 배치(도시계획) ·고층건물 등장(공간의 합리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인위적 공간 조성
	·지식인 계층의 도시 집중	·도시를 근대적 공간으로 인식
	·도시의 혼잡 ·농촌사회와 도시의 격차 ·농촌사회에 대한 봉건계층의 착취	·농촌사회를 쾌적한 공간으로 인식 ·농촌사회와 도시를 대립구도로 인식 ·농촌사회의 정체성 확립
	·후기 Bergson주의	·공간을 고정된, 비변증법적인 것으로 인식
현대	·마르크스주의	·농촌사회와 도시의 대립구도 강화 ·공간을 사회적·변증법적으로 인식
	·모더니즘	·농촌사회를 전근대적 공간으로 인식
	·포스트모더니즘	·진보·근대화 개념 탈피 ·농촌사회공간에 주목 ·공간의 유동적(주관적) 해석

판적 작업에만 한정시키고 있을 뿐, 결코 모더니즘을 하나의 역사적 과정으로 이론화시키지 않았으며, 그의 포스트모던적 이론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분석과 비판으로부터 멀어져 철학에 머물고 있다. Foucault 역시

사회나 문화에 대한 포스트모던적인 형식에 대한 분석보다는 근대적 지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청에 더 가깝다. Baudrillard도 초기에서 중기까지의 작품은 현대의 기술자본주의를 설명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도 체계적이기보다는 수사학으로 전락하여 궁극적으로 그의 노력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론화되어 있지 않고 적합하지도 않다.

위에서 고찰한 시기별 농촌사회·도시·도시화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면 표 3, 시기별 농촌과 도시의 관계 및 공간인식 변화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IV. 결론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철학적 연원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고대로부터 도시는 자연을 정복한 인간의 문명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반면, 농촌사회에 대하여는 미발전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큰 흐름을 형성하여 왔다. 특히 근세 이후 농촌사회에 대하여는 전근대적이라는 인식이 큰 흐름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시각에서의 농촌사회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 산업화 과정의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농업의 후진성과 농촌사회의 전근대적 성격이 강조되어 왔고, 농촌사회의 전근대적 성격이 낮은 농업소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도시화는 근대화·합리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농촌사회는 생산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고 도시화는 근대화의 과정 혹은 산업화의 필연적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르크스주의는 농촌사회와 도시의 대립적 구도에 집착하면서,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론적 관심을 결여한 채 도시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모더니즘 역시 농촌사회를 전근대적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도시화를 암묵적으로 지지하여 왔다. 모더니즘 중 비판이론이 이러한 근대화론적 시각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농촌사회라는 공간에 대하여는 여전히 전근대성을 투영하였고 새로운 인식론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농촌사회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농촌사회에 대한 이론적 지지를 하였으나 역시 새로운 인식론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론적 입장들은 일반적으로 농촌사회와 도시의 대립적 구도를 견지하거나, 농촌사회의 도시화를 지지하여왔을 뿐, 농촌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을 정립하거나, 농촌사회의 새로운 가치

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농촌사회는 더 이상 농업만을 통하여 유지되는 생산공간이 아니며, 농업 이외의 새로운 가치의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사회의 유지보다는 농촌사회가 가지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동시에 농촌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사회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은 여전히 농촌사회의 도시화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농촌사회를 인식에서 소외시키거나, 존재가치는 인정하더라도 인식론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농촌사회에 대한 최초의 인식론적 고찰로서, 농촌사회에 대한 기존의 인식론의 고찰과 정립을 통하여, 바람직한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론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양중심의 인식론적 고찰에 치중하여 있음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차후 동양적 인식론적 고찰을 통한 비교연구와, 농촌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의 정립은 차후의 연구과제이다.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FR-2002-074-BS1019)

참고문헌

1. 고어, 찰스(Gore, C), 1997, 현대지역이론과 정책, 한울아카데미
2. 기든스, 안소니(Giddens, A), 1998, 사회구성론, 자작아카데미
3. 김상환, 1996,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4. 리오타르, 장-프랑수아(Lyotard, Jean-François), 1992, 포스트모던적 조건: 정보 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 서광사
5. 박경, 2003, 유럽의 농촌지역정책과 LEADER 프로그램. 유럽지역연구회.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한울아카데미 : 87-118
6. 박영한, 조영국, 2002, 산업화·탈산업화가 농촌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박삼욱 외 지음,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 탐색, 한울아카데미 : 147-174
7. 버만, 마샬(Berman, M), 1995,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8. 버트하임, 마거릿(Wertheim, M), 2002, 공간의 역사, 생각의 나무
9. 베네볼로, 레오나르드(Benevolo, L), 1996, 근대도시 계획의 기원과 유토피아, 태림문화사
10. 베를렌, 베노(Werlen, B), 2003, 사회공간론: 사회지리학 이론 발달사, 한울아카데미
11. 베스트, 스티브(Best, S), 켈너, 더글라스(Kellner, D), 1995, 탈현대의 사회이론, 현대미학사
12. 보드리야르, 장(Baudrillard, J), 1991, 소비의 사회: 그 신화의 구조, 문예출판사
13. 보드리야르, 장(Baudrillard, J), 1992a,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문학과 지성사
14. 보드리야르, 장(Baudrillard, J), 1992b, 시뮬라시옹: 포스트모던 사회문화론, 민음사
15. 사카이 겐이치(酒井憲一), 1998, 어메니티, 서울: 뜨남
16. 소자, 에드워드(Soja, E), 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7. 손더스, 피터(Saunders, P), 1998, 도시와 사회이론, 한울아카데미
18. 심, 스티어트(Sim, S), 2003, 리오타르와 비인간, 이제이북스
19. 안태환, 2000, 도시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20. 야마자키 미쓰히로(山崎光博), 1997, 녹색관광, 일신사
21. 유명서, 1993, 농업발전론, 선진문화사
22. 이우재, 1977, 한국 농업문제의 본질, 변형운 외 9인 공저, 한국농업문제의 인식, 도서출판물결 : 41-65
23. 이진경, 1997,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4. 임형백, 이성우, 2003, 농촌과 도시의 공존을 위한 인식론적 전환: 근대화론 비판, 농촌사회 13(2) : 41-73
25. 조명래, 2002,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아카데미
26. 최병두, 2001, 하비의 정치경제학적 공간이론, 국토연구원 엮음,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 482-491
27. 최양부, 1985, 지방발전을 위한 중소도시와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 정주생활권 개념에 의한 국토인식과 농도통합, 최상철 외 9인, 지방의 재발전, 민음사 : 159-184
28. 카스텔, 마누엘(Castells, M), 2002,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9. 터커, 케니스(Tucker, K. H), 1999, 앤서니 기든스와 현대사회이론, 일신사
30. 푸코, 미셸(Foucault, M), 1986, 말과 사물, 민음사
31. 하비, 데이비드(Harvey, D), 1982, 자본의 한계, 한울
32. 한정선, 호이어, 안드레아스(Heuer, A), 1991, 현대와 후기현대의 철학적 논쟁, 서광사
33. 해리슨, 데이비드(Harrison, D), 1994, 사회변동론, 나남출판

34. Abercrombie, P., 1998, *Early Urban Plann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5. Baudrillard, J., 1983, *Les strategies fatales*, Paris, Grasset
36. Bendix, R., 1967, Tradition and moderinty reconsidered,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IX 3 : 292-346
37. Bock, K., 1979, Theories of progress, development, evolution, in T. B. Bottomore and R. Nisbet (eds.), *A History of Socological Analysis*, London, Heinemann
38. Burt, E. A., 1980, *The Metaphysical Foundations of Modern Science*, New Jersey, Humanities Press
39.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London, Arnold
40. Durkheim, E., 1964, *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41. Fei, J. C. H. and G. Ranis, 1964, *Development of the Labor Surplus Economy: Theory and Policy*, Homewood VII., Irwin
42. Foucault, M., 1980, Questions on Geography, in C. Gordon (ed.),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UK, Random House
43. Friedland, R. and D. Borden, 1994, Nowhere: an Introduction to Space, Time and Modernity, in R. Friedland and D. Borden (eds.), *Nowhere: Space, Time and Modern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4.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 Band 2, Frankfurt, Suhrkamp
45. Harvey, D., 1985, *Consciousness and the Urban Experience: 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Capitalist Urbaniz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46. Higgins, B., 1956, The Dualistic Theory of Underdevelopment A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 : 99-115
47. Jammer, M., 1993, *Concepts of Space: The History of Theories of Space in Physics*, New York, Dover
48. Lash, S., 1992, Berlin's Second Modernity, in P. L. Knox (ed.),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New Jersey, Prentice-Hall
49. Lefebvre, H., 1970, Reflexions sur la Politique de lespace, *Espaces et Societies* 1 : 3-12
50.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Donald Nicholson-Smith (trans.), Oxford, Balckwell
51. Lewis, A. W.,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The Manchester School* 22 : 139-191
52. Lyotard, J. F., 1991, *The Inhuman: Reflections on Time*, G. Bennington and R. Bowlby (trans.), Oxford, Blackwell
53. Marx, K., 1973, *Grundrisse: Foundation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Harmondsworth, Penguin
54. Marx, K., 1981,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55. Marx, K., 1983, *Capital*, vol. 1. (11th ed.), London, Lawrence & Wishart
56. Meier, G. M (ed.), 1964, *Leading Issues in Development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7. Newby, H., 1977, *The Deferential Worker*, London, Allen Lane
58. Nurkse, R., 1953,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9. OECD, 2000, *Valuing Rural Amenities*, Paris, OECD
60. OECD, 2001, *Multifunctionality: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Paris, OECD
61. Poulantzas, N., 1978,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Verso
62. Rabinow, P., 1984, Space, Knowledge, and Power, in P. Rabinow (ed.), *The Foucault Reader*, London, W. W. Norton & Company
63. Rex, J. and R. Moore, 1967, *Race, Community and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4. Saunders, P., 1978,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 (2nd ed.), Winchester, Unwin Hyman Ltd
65. Simmel, G., 1994,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in K. Wolff (ed.), *The Sociology of George Simmel*, New York, Free Press
66. Smelser, N. J., 1969, Mechanizms of and adjustments to change, in T. Burns (ed.), *Industrial Man*, Harmondsworth, Penguin
67. Smith, N., 1986, On the Necessity of Uneve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0(1) : 87-104
68. Warf, B., 1993, Postmodernism and the localities debate: Ontological questions and epistemological implication,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84(3) : 162-168
69. Weber, M., 1958, *The City*, Chicago, Free Press
70. Wehler, H. U., 1975, *Modernisierungstheorie und Geschichte*, Göttingen

72. Williams, R., 1973, *The Country and the City*, London, Chatto & Windus (ed.), *Louis Wirth on Cities and Social Life*,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3. Wirth, L., 1964, Rural-urban differences, in A. Reis